7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2021년 7월 시청자위원회 회의

7월 27일(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21년 7월 27일(화) 15:30 OBS 대회의실에서 진행 예정이던 회의를 서면회의로 변경해 진행

참 석

민민홍 위원장	김학균 대표
김소라 위원	홍종훈 시청자심의실장
김용배 위원	유재명 보도국장
문미경 위원	이선희 편성국장
박진솔 위원	황선대 콘텐츠국장
신용태 위원	윤경철 디지털미디어센터장
유승분 위원	
장숙경 위원	
주홍미 위원	

시청자심의팀

1) 6월 제안 사항 처리 결과: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보도 국장	<OBS 뉴스중심> 5월 12일 <'김부선'된 GTX-D 노선... "이건 아냐">에 이어, 6월 7일 <나사 풀린 성남 공직기강... 대책은>을 다루면서 앵커포커스에서 경인지역 문제에 집중한 것이 좋았다. 6월 9일 <대체 휴일, '차별 휴일' 되지 말아야>에서는 약자 배려가 돋보였다. - 박진솔 위원	최근 경인 지역 현안과 관련한 주제로 앵커포커스 제작을 늘려 가고 있다. 지역 내 소외받는 약자를 위한 아이템도 더욱 개발하겠다.
보도 국장	<OBS 뉴스 홈페이지> OBS 뉴스 홈페이지 하단에, '뉴스디거'가 있고 그 안에는 '접속각/인사이드 스토리'가 있다. '뉴스디거'와 '접속각'에 대해서는 의미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줄 설명이라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 박진솔 위원	지적하신 대로 해당 코너에 대한 설명 내용을 기재했다.
보도 국장	<OBS 뉴스 오늘 - 지방자치 30년 톡톡 지방의회> 6월 8일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이 출연한 방송 편에서 출연자의 준비 부족이 많이 아쉬웠다. "~일 것입니다."라는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고, 사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방송됐다. 출연자가 정확한 데이터를 사전에 숙지하여 인터뷰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배경 화면에 주제인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의회 활동' 사진만 반복해서 나왔던 것도 아쉬웠다. - 김용배 위원	톡톡 지방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의정활동과 지역 내 현안 등을 듣는 코너이다. 다만, 의원들마다 방송 진행 능력에 대한 차이가 있고 일부 의원들은 프롬프터를 보고 읽는 경우가 있다. 출연자에게 좀 더 철저한 사전준비를 요청하겠고 자료영상도 적절히 방송되도록 노력하겠다.
콘텐츠 국장	<전기현의 씨네뮤직> OBS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영화	시청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해설을 늘리겠다.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에 관심이 있는 많은 시청자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500회 특집은 명사들의 인생에서 영화가 가지는 영향력을 보여줘 인상 깊었다. 평소에 비해 보다 대중적인 영화를 소개한 점도 좋았다. 동검도 예술극장에서 진행한 것은 인천의 새로운 명소를 소개하는 의미 뿐 아니라 시니어층을 겨냥한 영화산업 확장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기도 했다. 이전에는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MC의 멘트로 당황스러울 때가 가끔 있었다. 500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용어해설이 보다 자주 화면 밑에 곁들여지면 좋겠다. - 장숙경 위원	
콘텐츠 국장	<전기현의 씨네뮤직> 6월 5일 방송은 2011년 7월 8일 첫 방송되고 500회를 맞이하는 의미를 잘 살려준 방송이었다. 전기현의 씨네뮤직은 '영화 프로그램'이라는 레드오션에서 '숨어있는 명작+음악'이라는 틈새시장을 개척하여 장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500회 특집처럼, 매회 영화계 저명인사 한 분 정도의 영화와 영화음악에 대한 생각과 추억을 들려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 - 박진솔 위원	제작비 여건이 되는대로, 프로그램의 다채로운 변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콘텐츠 국장	<전기현의 씨네뮤직> 500회를 맞이한 특집방송으로 스튜디오를 탈피해 강화군 동검도에 위치한 예술극장에서 진행하며 색다르고 신선한 모습을 보여줬고, 씨네뮤	제작비 여건이 되는대로, 프로그램의 다채로운 변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직 팬을 자처하는 영화계 인물들이 소개하는 '내 인생의 영화와 음악'도 인상 깊었다. 자신의 인생 영화를 떠올리고 추억하면서, 가슴 뭉클해지기도 했다. 특집에서 진행자 아닌 인물이 영화를 소개하는 색다름을 보여줬는데, 영화 한 편 정도는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 - 김소라 위원	
콘텐츠 국장	<천년의 길>, <테마기행 두 바퀴로 만나는 세상>, <발품여행 숨보명> <천년의 길>은 '둘레길', <발품여행 숨보명>은 '경기도의 숨은 보석같은 여행지'라는 분명한 콘셉트가 있어보인다. 반면, <테마기행 두 바퀴로 만나는 세상>은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자전거여행' 성격을 선명하게 하면 좋겠다. - 문미경 위원	<테마기행 두바퀴로 만나는 세상>은 자전거여행의 특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편성 국장	<발품여행 숨보명> 역사/문화 중심의 여행 소개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와 최근의 도시 변화까지 설명하는 점이 장점이다. 예를 들어, '8회 매향리' 편처럼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도 차별점이다. 다만, 맛집 소개가 지나치게 길고, 진행자의 톤&매너 역시 맛집 탐방 전문 리포트 느낌이라서 전체 프로그램의 호흡과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요즈음 여행 프로그램에서는 진행자가 현장에 대한 자기 이해를 갖고	숨보명의 타이틀에 어울리게 맛집은 최소화 하고 시청자들이 가 볼 만한 장소 발굴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 리포터와 의원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촬영 과정에서 신경 쓰도록 하겠다.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현장 사람을 찾아가는 추세인데, 숨보명에서는 리포터와 도의원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은 느낌이 있어 불편할 때가 있었다. - 이동선 위원	
편성 국장	<발품여행 숨보명> 경기도 지역은 빠르게 도시화되는 지역이 많으므로, 새로 정착해 살고 있는 새로운 시민들에 대해 조명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OBS 타깃 확장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인스타그램 명소 중에 경기도 지역이 꽤 많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명소도 발굴해 소개하고 있으니, 프로그램 제작에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 이동선 위원	경기도 지역의 명소들을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편성 국장	<낭만읍 고향리> 6월 25일 방송된 '서호시장' 편은 방송 시점과는 거리가 있는, '추석을 앞둔 시장의 모습'이라서 많이 어색했다. 방송 내보내기 전에 섬세한 주의가 필요해보인다. - 문미경 위원	기 제작된 프로그램(타 채널 교환 프로그램)을 올해 초부터 지속 편성하다보니 다소 계절과 시의성이 맞지 않는 회차가 발생했다. 이후에는 프로그램의 방송 일정을 조정하여 계절에 맞는 내용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디지털 미디어 센터장	<꿈꾸는 U> 꿈꾸는 U 애청자다. 광주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5월 광주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이 영상처럼 다른 도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5월 광주 이야기는 많지 않다. 특히, 5월 주먹빵 이야기로 시작하는 콘셉트가 따뜻했다. 꿈꾸는 U가 관람자 입장에만 놓여있던 시청자들에게서 창작(제작)자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점에	'오월주먹빵'은 제작진도 알지 못했던 소재였으므로 대중에 알릴 가치가 크다고 판단했다. 시기상 5.18에 맞추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도 있다. 매주 다양한 시청자의, 새로운 관점으로 담긴 영상콘텐츠를 방영할 수 있다는 점이 꿈U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제작자의 연령, 성별, 직업 등을 망라한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수급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노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서 칭찬하고 싶다. 시청하면서, 나도 창작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 유승분 위원	력하겠다. 누구든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겠다.
기타	<홈페이지> 홈페이지 개편으로 방송의 내용을 보기가 훨씬 용이해졌다. '한강하구 랜선 사진 콘서트'를 O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미있게 봤었다. 좋은 콘텐츠였는데, 홈페이지 링크 등 다시 찾아보는 것을 돕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한다. - 유승분 위원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한강하구 랜선 사진 콘서트' 링크를 걸어 시청자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처리 완료했다.
기타	<재테크쇼 박미선과 돈워리 돈해피 홈페이지> 홈페이지 다시보기에 대한 조금 더 세심한 관심으로 조회수를 늘렸으면 한다. 재테크쇼의 경우, 다시보기에 해당 주차의 대제목만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주차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나타낼 수 있는 일부 설명이나, 소개글이 간단히 들어가는 것이 정보전달 면에서 필요하다. - 신용태 위원	담당 PD를 통해 방송 회차분의 내용을 받아, 해당 회차의 주제와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겠다.
기타	<홈페이지 활성화, 메타버스 관련 제안> 홈페이지를 사람들이 많이 찾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숨보명>의 다음 여행지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는 것도 시청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요즈음 메타버스가 대세다. OBS가 경기도 메타버스를 만들어보면 어떨	제안해 주신 내용을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까 한다. 관련 사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의 지원 의지도 커 보인다. 경기도 메타버스를 만들면 분양 등을 통해 수익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 신용태 위원	

2) 7월 방송 내용 및 2021년 8월 방송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김소라 위원: <돌아온 불타는 그라운드 2021>에 대한 의견

선수 개개인의 인간적인 면모와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어, 프로야구 팬이 아닌 입장에서 보더라고 재미 있었고 야구라는 직업 세계에 경외심을 갖게 하는 방송이었다.

유튜브 댓글에 '그 시절 감성'을 다시 보게 돼 반갑다는 팬들의 반응이 많은데, '불그'만의 감성을 지켜며 진심과 열정이 돋보이는 방송이 되기를 기대한다.

네이버, 카카오에서 동시 방송되고, SSG랜더스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일한 방송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보이며, 유튜브 댓글을 통해 팬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 소통의 재미가 있다.

박진솔 위원: <돌아온 불타는 그라운드 2021>에 대한 의견

가장 오래 활동하고 팀을 지켜온 김강민 선수를 첫 회 주인공으로 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팀의 최고참 선수라 하면 일부러 더 띄워주는 등 연출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게 없이 담백하게 보여줘 좋았다.

제작진이 SSG랜더스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선수들에게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욱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김강민 선수를 묘사하는 데 사용한 '상남자', '츤데레' 등의 표현은 시대에 맞는 표현이나 순화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프로그램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가서 편성표를 찾았으나 안 보였다. '편성안내'를 눌러보니 그게 '편성표'였는데, '편성안내'는 'OBS는 편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 사항을 적어놓은 곳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이었다.

타사 대부분이 표기하고 있는 것처럼, '편성표'라고 하는 게 단번에 알아보기 쉬울 것 같다.

장숙경 위원: <돌아온 불타는 그라운드 2021>에 대한 의견

새로 시작하는 SSG랜더스인 만큼 첫 회에는 팀과 선수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

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선수 인터뷰에서 선수의 자기 의지, 팀 내에서의 관계, 선수 일생의 소회, 앞으로의 희망 등 다양한 인간으로서의 면모와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질문을 던져 시청자에게도, 선수에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민민홍 위원: <전기현의 씨네뮤직>에 대한 의견
영화 음악을 통해 시청자에게 감동과 꿈을 주고 지친 일상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어서, 가장 OBS다운 프로그램이라고 칭찬할 만하다.
500회 특집에서 강화도의 작은 예술영화 전용극장을 선정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또한 126년 역사의 애관극장 소개 등으로 영화 음악의 도시로 인천 이미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
500회 특집과 같이 특별 프로그램을 좀 더 자주할 것을 제안한다. 여러 분야의 품위 있는 이야기 손님도 초대하고, 촬영 장소도 상징적인 곳을 선정해 진행하면 좋겠다.

유승분 위원: <전기현의 씨네뮤직>, <발품여행 숨보명>에 대한 의견
<전기현의 씨네뮤직>은 레전드급 배우가 출연한 영화들을 음악과 함께 풀어가는 스토리텔링에 지루한 줄 모르고 빠져들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고, 감성을 돋우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발품다큐 숨보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시절에 각 지역의 숨은 명소를 소개한다는 콘셉트가 좋다. 경기도의 아름다운 명소를 찾아 떠나는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으로, OBS를 찾아보게 만드는 따뜻한 콘텐츠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주홍미 위원: <미디어공감 좋은TV>에 대한 의견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는 시청자 혹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환기시켜주는 소재를 다루며, OBS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실에 발 딛은 콘텐츠 인기' 키워드에서 주위에 있을 법한 일반인들의 평범한 삶을 다룬 콘텐츠가 주목받는 현실에 대해 조명했다. 이 키워드 분석은 OBS 다큐 프로그램 제작 방향에 설득력을 더해줬다.

문미경 위원: <독특한 연예뉴스>,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예방 캠페인>에 대한 의견
<독특한 연예뉴스>에서 펜트하우스 2 조비서 역할을 하는 김동규를 인터뷰하여 조연 배우를 조명하는 기회가 됐다. 또한 김희선이 결혼과 출산 후 복귀하여 흥행 부진 속에서도 끊임없이 연기에 도전하며, 배우로서 완성돼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아역 연기자부터 노년 배우까지, 또 활동하고 있지 않은 연기자까지도 취재, 보도하

여 연기자를 생활인의 모습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산업재해예방 캠페인> 외국인 노동자 안전 사고 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연하여, 작업 및 기계 사용에 대해 “천천히” 말해주면 좋겠다 등을 말했다.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업이나 한국 노동자들에게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모습이 좋았다.
OBS가 인권과 환경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계속 키워나갈 것을 요청한다.

김용배 위원: <아침 브리핑 뉴스 편성>에 대한 의견
전날 밤 10시 30분 뉴스라인 인천-경기 이후, 오전 9시 50분에 OBS 뉴스가 짧게 편성되고 있다.
여러 여건상 뉴스 포맷 편성이 어렵다면, 밤새 일어났던 사건 사고와 코로나19 관련된 정보라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침 시간대에 편성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날씨 안내’ 코너 방식으로 요약 내용을 소개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새로운 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신용태 위원: <검진왕>에 대한 의견
다양한 기능의학 검사를 깊이 있게 그러나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7회 방송의 경우, BNR17 유산균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이 외의 내용은 잘 알려진 내용들이라 솔루션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보편적이고 신선한 내용들로 보강되고 다양하게 제시되면 더욱 유익할 것 같다.

신용태 위원: <홈페이지(페이지 넘김 버튼)>에 대한 의견
홈페이지 ‘교양’, ‘다큐’ 등 카테고리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카테고리 내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다음 페이지로 넘길 수 있는 버튼 형태의 UI가 있다.
이 버튼 형태의 UI가 시청자들에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을 OBS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숫자 형태의 버튼으로 바꾼다면 시청자들에게 좀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여 질 것으로 보인다.

3) 차기 회의 일정: 2021년 8월 31일(화) 15:30